

2020

교회여남평등주간 예배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회공동체



*2020년 교회여남평등주간은 12월 6일(일)-12일(토)입니다.

*예배문은 교회협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hwp, pdf)

<http://www.kncc.or.kr/> (여성청년 게시판)

알리는 말씀

1. 교회여남평등주간은 교회협 제48차 총회가 제정한 주일이며, UN 세계인권선언일(12.10)이 있는 주간을 한국교회가 평등문화에 대한 의식 확산을 위해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위원회는 여성인권에 대한 의제들을 선정하여 자료집을 제작하거나, 캠페인을 진행,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보다 교회여남평등주간을 기억하고, 함께 여성 이슈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문을 작성, 보급하기로 하여 2019년부터 배포합니다.
2. 2020년 교회여남평등주간은 12월 6일(일)-12일(토)입니다. 특별히, “교회여남평등주간 실천 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각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신 후 영상을 ncckwomen@kncc.or.kr 으로 발송해주시면 취합하여 실천교회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3. 교회여남평등주간 중, 목요일(12/10)에는 성폭력, 젠더 폭력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은 옷 입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검은색 옷 입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Thursdays-in-black 로 업로드 하기) 이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30년 이상을 진행한 ‘Thursdays in Black’ 캠페인에서 기인합니다.

<https://www.oikoumene.org/en/get-involved/thursdays-in-black>



2020년 교회여남평등주간 예배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회공동체”

개회의 예전

예배로의 초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온전한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한 나, 사회적 모순과 불의 앞에 상처받고 외면당한 나,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주변인이 된 나, 차별과 혐오 앞에 무력한 나, 권력 앞에 침묵해온 나, 이 모든 '나'를 이 예배에 환영하며 초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찬 송

우리찬송가 5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포장크로

1.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 지 러운 세상 중 예
 2.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 두 위진 세상 중 예
 3.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 아 계신 하나님도
 4.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 시 사 신 그 리 스 도

곳 마 다 상 한 영 의 탄 식 소 리 들 려 온 다
 외 치 는 자 많 건 마 는 는 생 수 수 는 말 려 오 라
 약 한 자 를 부 르 마 시 어 하 는 하 는 수 는 말 려 오 라
 만 백 성 을 사 랑 하 사 오 래 참 고 기 다 리 셔

빛 을 잃 은 많 은 사 람 길 을 잃 고 해 매 이 며
 죄 생 대 속 하 신 은 사 람 수 선 하 일 고 혼 찾 시 나
 인 에 하 신 우 리 예 수 수 의 의 심 판 나 하 시 는 날

탕 자 처 럼 기 진 하 니 믿 는 자 여 어 이 할 꼬
 대 답 할 이 어 디 디 나 믿 는 자 여 어 이 할 꼬
 예 수 가 까 이 부 르 하 는 데 믿 는 자 여 어 이 할 꼬

참회의 기도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참회합니다. 수많은 여성과 약자들에게 불안정한 교회가 된 것을 참회합니다. 씻지 못할 상처로 아프고 힘들었을 이들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해온 것을 참회합니다. 권력과 힘의 논리에 굴복하고 쉽게 익숙해져 버린 것을 참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것을 잊고 살았음을 참회합니다. <침묵>

용서에 대한 감사

인도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 9:17)

회 중: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니 새로운 마음을 품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예전

성폭력 당한 여성들의 호소

여성시편 52편

인도자: 하나님 강포한 자들이 어찌하여 악한 일을 하고도 시치미를 뚝니까?

회 중: 그들은 어찌하여 순전한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도 태연합니까?

인도자: 그들은 순수한 사랑보다 욕정을 더 즐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회 중: 그들은 간사한 혀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의 딸을 욕보이며 무슨 짓이든 저지릅니다.

인도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하나님의 종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며 우리를 유린했습니다.

회 중: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는 벌거벗고 살아가며 죄 없는 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울 것 없다는 말에 옷을 벗던 날 우리 몸은 그들 장막에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인도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회 중: 사람들이 그들이 죄 값을 치루는 것을 보고 “저 자는 하나님의 종임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성욕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딸들에게 희롱과 폭력을 일삼던 자다” 하며 손가락질하기를 원합니다.

인도자: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오히려 폭력 당한 우리를 유혹자라 비난하면서 잎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회 중: 우리를 박해한 이들이 하나님의 종 자리를 면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함 께: 하나님의 집에서 성폭력이 없어지는 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목 상

성경봉독

창1:26-27, 갈3:28

<구약의 말씀> 창1 :26-27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신약의 말씀> 갈3: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부르는 특송

아무것도 너를

아 무 것 도 너 - 를 슬 프 게 하 지 - 알 - 며 아
 무 것 도 - 너 - 를 혼 - 란 케 하 지 알 지 - 니
 모 든 것 은 다 지 나 가 는 것 다 지 나 가 는 것 오 -
 하 나 님 은 불 변 하 시 니 인 내 향 이 다 이 기 느 니 라 하
 나 님 을 소 유 한 사 람 은 모 든 것 을 소 유 한 것 이 니 하
 나 님 만 - 으 - 로 만 - 족 - 하 - 도 - 다

응답과 다짐

인도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회 중: 우리 안에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인도자: 온전한 성평등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 중: 무너진 예수그리스도의 신앙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인도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 께: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파송의 예전

파송 찬송

성공회성가(2015) 361장 어두움 속에 빛을 바라네

Em Am7 D Esus4 Em Am7 D Esus4

1 어두움 속에 빛을바라네 진리를 찾아 헤매이네
2 어려움 속에 평화바라네 절망가운데 희망보네
3 굶주림 속에 떡을바라네 목마름속에 물을찾네

Em Am7 D G C Am Dsus4 D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는 주님의 자녀 되리
당신의 말씀 우리의 구원 주님의 음성 되리
많은사람들 나누어 먹일 주님의 양식 되리

후렴 G C G Em Bm Em Am Dsus4 D

주 오소서 어둠뚫고 우리맘속에

G Dsus4 D Em Em/D C Am7 D G Am/G G

빛 되소서 우리안에 머무소서

4 갈 곳이 없는 외로운 사람 따뜻한 온기 간절하네
피난처 되실 주님의 성전 한조각 돌이 되리

5 수많은 은총 수많은 사람 수없이 많은 소망 중에
서로를 위해 종이 되리니 주님의 나라 오네

가사: Christ, Be Our Light! Bernadette Farrell [역] 최진현, 2013
곡조: CHRIST BE OUR LIGHT Bernadette Farrell

Words & Music © 1993, Bernadette Farrell. Published by OCP, 5536 NE Hassalo, Portland, OR 97213 All rights reserved. Used with permission.

공동 축도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오니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 정의와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파송사

인도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시다.

함 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매일 기도문>

12월 7일(월) 안전한 교회를 위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환대와 안전과 연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조심하며 살펴보되 서로 관심을 갖고 돌보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되 기꺼이 질문하게 하소서.
그럼으로써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가 안전함 속에 머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아는 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찾고 이웃과 친교를 나누고자 하는 모든 이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교회의 문들이 좁아지게 하시어,
용졸함과 교만과 질투와 적개심이 들어올 길은 막히게 하소서.
교회 문턱이 낮아져,
젊은이와 연약한 이들의 발부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교회 문턱이 높아져,
저만 아는 이들이나 이기적인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안전한 곳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8일(화) 생존자를 위한 기도

생명의 하나님, 고통 속에 있으며 부서질 듯 연약해진 모든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빛으로 이들의 어두움과 외로움을 쫓아내시고,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참 자아를 되찾게 하소서.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강건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만 남겨두지 않으시며 죽음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들이 어둠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나,
앞날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언제나 함께해 주소서.

이들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삶을 지탱해주시는 당신의 힘이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9일(수) 교회공동체를 위한 기도

정의의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너무도 많이 빛나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 고백하면서 당신의 지체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착취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도 감추고 외면하며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의에 무딘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뿐인 사랑 말고 좀 더 배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폭력 생존자의 각각의 다른 사정과 상황을 수용하게 하시고
피해자다움을 기대하거나 선불리 용서를 강요하지 않게 하소서.
생존자들을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좀 더 섬세하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성령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인간들의 사사로운 목적과 이유로 만들어진 곳이 아님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지체로 서로에게 속해있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함을 믿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온 맘을 다해 지키게 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참회할 때에 용서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10일(목) 여성십계명 *묵상한 후에 기도합니다.

1. 목회자도 우리처럼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말지’ 맙시다!
2. 목회자도 우리처럼 성적 존재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필수’입니다!
3. 목회자도 우리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무조건적인 의지는 서로에게 ‘해(害)’가 됩니다!
4. 목회자의 말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듯 말하는 목회자의 권력욕을 경계합시다.

5. 목회 사역을 위한 성적 접촉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도 응답'을 근거로 접근해오는 목회자를 경계합니다.
6. 목회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능력이 더 발달되기 쉽습니다. 목회자의 발언을 맹신하지 맙시다.
7. 목회자는 가부장적인 편견을 가지고 목회하기 쉽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질문하고 주변 사람들과 토론합니다.
8. 권력이 집중된 목회자는 타인을 통제하려 들기 쉽습니다. 개인의 생활과 생각이 목회자로부터 존중받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9. 사랑의 표현은 강압적일 수 없습니다. '특별한 애정'이라는 핑계로 목회자에게 강요당하진 않는지 점검합니다.
10.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부터 성폭력과 혐오가 시작됩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 즉시 그만하라고 요구합니다.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예방지침서」(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2005)에 수록된 '목사 바로알기 십계명'을, 교회협 여성위원회 내 성폭력대책소위원회가 2018년 수정한 내용입니다.

12월 11일(금) 가해자를 위한 기도(원할 시)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 이 영혼을 내 증오 안에 두지 않고 놓아 보내어
당신의 손에 맡길 용기를 주소서. 가해자의 존재로 인해 견딜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지게 하시고
더 이상의 해악을 저지르지 않게 막아주소서.
자신이 타인에게 안겨준 고통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당신께 돌아와 용서와 자비를 구하게 하소서.

저의 영혼을 돌보시사, 가해자를 저의 생각과 꿈, 기억 안에 두지 않도록 하소서.
저의 영혼을 인도하시사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당신이 제게 베푸시는 치유로 나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12일(토) 교회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짐의 기도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다양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므로
타인이 불행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없고 내가 고통에 신음할 때
타인도 행복할 수 없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고한 가부장제 사회구조와 이를 방조해온 우리의 무관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방관해온 까닭입니다.
일방적인 용서라는 이름으로 생존자의 고통에 찬 신음 소리마저 묵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세요.
생존자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교회공동체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 성폭력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가, 교회와 사회가, 너와 내가 분리된 것을 목도합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당신 앞에 다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자 하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단 한 사람의 존엄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고 앞장서도록 인도주소서.

나아가 모든 폭력과 혐오와 배제로부터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당신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불의한 권력 구조와 어떠한 희롱과 성폭력도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강요된 용서를 바라고, 생존자들을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억압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생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악행을 멈추어
주시고, 생존자의 고통에 다만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넘어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 단
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1.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사람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죄 된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성적대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性)의 문제는 늘 신앙의 걸림돌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 죄 된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본능 차이로 설명을 하며 합리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26절 상반절에 나타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의 "사람"입니다. 남자, 여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가 따라옵니다. 즉,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남자와 여자라는 각각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사람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폭력을 생물학적인 본능의 차이로 설명하며 합리화하는 것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2.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성폭력 관련 뉴스에서 교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은혜롭지 못하다'라는 명제 하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침묵을 강요합니다.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으로 치부하거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교회공동체의 구성원끼리 회개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은혜롭게 잘 정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피해자를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로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감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깊어만 가고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은혜롭게 잘 정리된 일이라 말할 수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3.

바울은 오늘의 본문인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즉,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요15:5)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공동체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연결된 동등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지도 다른 가지에게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권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공동체 안에는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잘못이라 자책하며 누군가 알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견디다 못해 공동체에서 떠난다면, 아니 이미 떠났다면 그 책임은 교회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연자뭇돌을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막9:42)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차 성폭력으로 심신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폭력을 가하고, 결국에는 영혼마저도 실족케 하는 3차 폭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선포받은 교회가 "서로의 지체"(롬12:5)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4.

교회는 사회화 과정 중에 무의식적으로 체화된 오래된 관습을 벗고 교회의 성폭력이라고 하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덮어야 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은혜로 덮고 가자 하는 것은 “죄로 죄를 덮는” 우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단호히 하지 않는 한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창세기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상호 존중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부장적 문화를 벗고 온전한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성폭력 해결을 위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앙공동체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공동체가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교회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내 성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교회 내 성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도록 부여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작성: 강은숙 목사 (예장, NCK 부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